갈 길 바쁜 AI페퍼스, 휴식기 앞두고 반등할까

오늘 오후 7시 수원실내체육관서 현대건설과 맞대결
4위 기업은행과 12점 차…남은 경기서 10승 따내야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순위 도약을 위한 승점을 노린다.

AI페퍼스는 21일 오후 7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현대건설 배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여섯 번째 경기를 치른다.

앞서 지난 17일 AI페퍼스는 한국도로공사 배구단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25-23 19-25 19-25 24-26)으로 패배했다. 직전 경기에서 '천적' 정관장을 잡아내고 연패 탈출에 성공, 이날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연승을 노렸으나 아쉽게 실패했다.

그 결과 8승 15패 승점 24점으로 리그 6위 자리를 유지했다.

4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앞둔 현재 V리그 여자부 상위권은 정해진 모양새다.

20일 경기 전 기준 1위 한국도로공사는 승점 49점으로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2위 현대건설(승점 42점)과 3위 흥국생명(승점 41점)은 1점 차로 초접전이다.

4위 IBK기업은행(승점 36점)도 봄배구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승점 사냥에 몰두하는 중이다.

5위 GS칼텍스(승점 30점)부터 7위 정관장(승점 18점)까지는 각각 승점 6점차를 유지하며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하위권은 한 경기만 더 멀어지더라도 뒤집기 어려운 격차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올스타 돌입 전 마지막 경기가 더욱 중요해졌다.

V리그는 23일까지 4라운드 일정을 마무리한 뒤 25일 올스타 경기를 치른다. 이날 모든 프로배구단과 팬들이 축제를 즐긴 뒤에는 5일간의 짧은 휴식기가 주어진다. 29일 재개되는 5라운드부터는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체력전이 중요해지는 후반기 돌입 전 어떤 성적을 받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전략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 1점이라도 승점 차이를 좁혀야 하는 이유다.

특히 AI페퍼스는 올 시즌 목표 달성을 위해 갈 길이 멀다. 시즌 승률 50% 이상을 넘어 20승 달성, 봄배구 진출이라는 과제를 설정했다.

현재 V리그 남은 경기는 13경기. 5할 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려 10승을 더 따내야 한다. 76.9%의 승률을 달성해야 하는 셈이다. 20승의 벽은 아예 넘볼 수도 없는 상황. 사실상 목표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매 경기 승리를 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리그 탈꼴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달성한 단일 시즌 최다승과 최다 승점(11승 25패·승점 35) 기록 역시 경신할만하다. 스스로 설정한 과업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지친 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기력은 보여줘야 한다.

AI페퍼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공격로가 너무 단순하다는 점이다.

외인 주포 조이에게만 공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다. 실제 최근 4경기 동안 매번 조이의 공격점유율이 40%를 웃돌았다. 물론 조이가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리그 득점 4위(546득점), 공격종합 1위(공격성공률 47.04%) 등에 오를 정도로 손에 꼽는다.

그럼에도 배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조이가 집중 견제를 당할 때 날개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AI페퍼스는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이 많다. 연봉퀸 출신 박정아, 박은서, 이한비, 박경현 등이 포진해 있다. 주장 고예림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밀리지 않는 자원이다.

하지만 이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공격성공률 또한 안타까울 정도다.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세터 이원정이 맹활약해 주고 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앞으로의 승리를 위해서는 팀 모두 기본기인 리시브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이번 경기 상대인 현대건설은 현재 14승 9패 승점 42으로 리그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올해 들어 3연패를 당한 뒤 직전 경기에서 정관장에게 셧아웃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최근 3경기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패로 AI페퍼스가 우위에 있다.

현대건설에서는 세터 김다인이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23경기(90세트)에서 970회 세트 성공으로 세트당 평균 10.778을 기록, 이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다인은 쌍포인 카리, 자스티스는 물론 베테랑 미들블로커 양효진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공 배분으로 팀 득점을 이끌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AI페퍼스가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배구를 보여줘야 한다.

올 시즌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AI페퍼스가 현대건설을 꺾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낱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코칭스태프 전략 세미나

최준영 대표이사·심재학 단장 등 38명

다시 정상을 노리는 KIA타이거즈가 2026시즌을 앞두고 코칭스태프와 프론트가 함께 팀 전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KIA는 지난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대회의실에서 '2026 시즌 코칭스태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최준영 대표이사를 비롯해 심재학 단장, 이범호 감독, 1군·퓨처스·잔류군 기술코치, 트레이닝 코치, 전력분석 코치, 프론트 등 총 38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시즌 리뷰부터 올 시즌 목표 수립까지, 한 시즌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발표가 파트별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지난 시즌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목표를 각 파트별로 수립했다.

이번 전략 세미나를 주관한 최준영 대표이사는 "지난 시즌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올 시즌을 철저히 준비해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하기 위한 약속의 자리이다"며 "프론트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고, 선수단도 잘 준비해 무너진 팬들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범호 감독은 "코칭스태프 모두가 세미나 준비를 잘 해줬다. 그러나 프로는 결국 성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합심해 반드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겠다"며 "개인보다 팀을 우선으로 하는 팀워크와 결속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상에 설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는 19일 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종목단체 회장,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6 종목단체 신년회'를 개최했다.

"종목단체 협력…공정·투명한 광주 체육 실현"

시체육회, 종목단체 신년회…회장·전무이사 등 100여명 참석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9일 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종목단체 회장,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종목단체 신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회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김석주 광주배구협회장, 한용수 광주게이트볼협회장 등 74개 종목단체 회장 및 전무이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6년 광주시체육회 비전 및 추진과제 보고, 민선 2기 체육회장 공약사항 이행 결과 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후에는 오찬과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시체육회는 2026년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스포츠도시 광주 실현'을 제시하면서 전문·학교체육 강화, 시민 참여 확대, 투명한 행정체계 구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체육시설 운영, 2028 전국체전 성공 개최 등 5대 분야 28개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 학교운동부 및 청년·우수선수 육성, 종목단체 평가를 통한 행정지원 차등 강화, 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및 직장운동경기부 안정적 운영 등이 제시됐다.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개최를 앞두고 전담부서 구성, 경기장 시설 확보 및 개·보수, 경기력 향상 대책 마련, 생활체육을 통한 전국체전 붐 조성 등 단계별 준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날 함께 보고된 민선 2기 체육회장 공약사항 이행 결과에서는 총 20개 공약 중 18개를 완료해 이행률 9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갑수 회장은 "2026년은 2028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라며 "종목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

서구청 펜싱팀, 오픈선수권 여자 단체 '금'

결승서 강원도청에 기권승…남자 단체전은 준우승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전국 남·녀 종목별 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금빛 찌르기를 선보였다.

정지윤, 김채린, 김다은, 김수빈으로 구성된 서구청 여자펜싱팀은 지난 19일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첫 대회 금메달이다.

이들은 32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16강에서 경상남도체육회를 37-32로 제압했다. 8강에서는 '강팀' 전남도청을 만나 45-33로 꺾으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서구청은 준결승에서 우송대를 36-23으로 완파한 뒤, 결승에서 상대의 기권으로 우승을 확정 지었다.

서구청 여자 펜싱팀은 김채린과 김다은을 영입했다. 새로운 멤버와 함께 동계 훈련을 소화한 이들은 시즌 첫 대회부터 금메달을 따내면서 앞으로의 대회 활약의 청신호를 켰다.

김상진, 이승현, 김재원, 김대언으로 구성된 서구청 남자 펜싱팀은 같은 날 열린 남자일반부 에페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16강에서 대전대를 45-35, 8강에서 울산시청을 39-33, 4강에서 부산시청을 45-23으로 차례로 완파하며 결승전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익산시청을 만나 6라운드까지 20-20으로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이어 7라운드 김대언이 4점을 따내면서 앞서나가는 듯 했으나 8라운드 김재원이 흔들리면서 승기를 내줬다.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이승현이 5점을 추가했지만, 격차를 더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스코어 30-34로 패배했다. 이로써 서구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

제27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광양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모습.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 개막

28일부터 광양서 전국 38개팀 열전

제27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광양에서 열린다.

대한축구협회와 광양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축구대회는 전국에서 38개팀이 참가해 15일 간 광양공설운동장, 축구전용1구장, 축구전용2구장, 마동1축구장, 마동2축구장 등 5개 경기장에서 학교의 명예를 걸고 자웅을 겨루게 된다.

경기방식은 예선 조별리그(10개조) 후 본선 20강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각 조 1~2위 팀이 본선에 진출하고 예선 순위는 승점(승점 3점, 무 1점, 패 0점) 순으로 결정된다.

본선 20강부터 4강까지는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자를 가리고 결승전에서 무승부가 발생할 경우 전·후반 각 10분씩 연장전을 실시한다.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린다.

개막 첫 경기는 28일 오전 10시 광양축구전용 1구장에서 서울 중앙고와 충남 예산삽교FC U18팀 간 경기를 시작으로 5개 축구장에서 일제히 경기가 치러진다.

이번 축구대회는 예선 조별 풀리그전부터 결승전까지 전 경기가 '광양시청티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백운기 축구대회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대회다"며 "선수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값진 경험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